

“북한 바로보기 운동부터 시작할 것”

남북 불교교류 역사 ‘산 증인’ 신임 민추본 본부장 범타스님



“단절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교류 차원에서 중단이 꾸준히 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통해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 사업을 차분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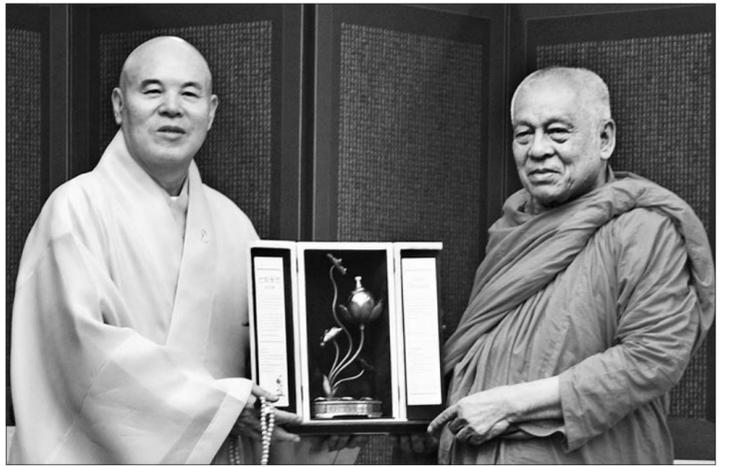
지난 14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임명된 제10교구본사 은혜사 회주 범타스님(사진)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바로보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범타스님은 “지금 당장은 남북교류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민추본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북한 불교계와

의 교류 노력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금강산 신계사 복원 등의 대북 사업을 계속해 준비하면서 교구본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등 불교계 지도층부터 신도들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바로보기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타스님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정년학생제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여러 차례 북한을 오가며 식량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눈으로 직접 본 스님은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에 옷과 밀가루 등을 전달하며 통일운동을 펼쳐왔다.

스님의 이같은 통일운동을 눈여겨 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임명식에서 범타스님에게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경험 많은 스님이 본부장을 맡아주셔서 고맙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범타스님은 “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중단의 통일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답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범타스님은 1967년 범주사에서 추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장 추무부장,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주지,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 회장, 은혜사 회주를 맡고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태국 담마웃니까이 종파 대표 쏘멧 프라 완나랏스님(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주한 태국 스님들의 체류연장과 교류 활성화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한 태국 스님 수행매진·체류연장 협조”

총무원장 자승스님, 태국 담마웃니까이 대표 환담

태국 불교계가 한국에 있는 태국 스님들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계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담마웃니까이 종파 대표를 맡고 있는 쏘멧 프라 완나랏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태국 스님들이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3개월밖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며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도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님들이 자국민 정신 수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와 국제팀을 통해 태국 스님들 체류 관련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 불교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이웃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아름다운동행의 자비나눔 ⑦

15년 동안 모은 용돈 1000만원 동행에 기부한 김초자 할머니

“못배운 한...아이들 되물림 않았으면”



지난달 11일 아름다운동행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산 해운대구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한 김초자(73) 할머니(사진)는 아름다운동행이 갖고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에 연필과 공책, 컴퓨터를 보내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못배운 게 한”이라며 “스님이 갖고 있는 학교에 필요한 게 뭐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밝힌 기부금은 1000만원. 뒷바라지만 하느라 고생만 했던 누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사 입으라며 동생들이 지난 15년 동안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보내온 돈이다. 김 할머니는 “어린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것이 끝내 한이 됐다”며 “가난한 나라 학생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연필 한 자루, 책 한 권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기쁠

것 같다”고 전했다. 경남 함안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왔다. 넉넉지 못한 집안 살림, 5남매 중 맏말이었던 할머니는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좋아하는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다. 김 할머니는 집집 평생을 배우지 못한 설움 속에 살았다. 김 할머니는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며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몸이 아프거나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했다.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김 할머니지만 ‘스님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보내온 용돈을 흔쾌히 낼 정도로 불심(佛心)도 깊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나온 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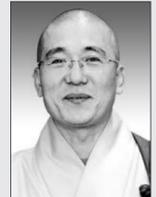
부산 백운사에서 신도회장을 40년도 넘게 하셨다”며 “스님이 학교를 짓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년 전 대장암 등으로 4차례나 수술을 받아 몸도 성치 않지만 김 할머니는 사찰이나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섰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 7명에게 매달 2~3만원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부산 원오사 무료급식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는데 주저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 할머니가 말했다. “내 밥값은 아까워도 어려운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스님과 신도들이 모은 돈으로 가난한 아프리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가 곧 문을 연다고 하는데 총무원장 스님 가실 때 연필하고 공책 들고 가시라고 200만원도 모아놨어요.”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허운스님, 군종교구 1천만원 지원 공동경비구역 신축법당 불사 동참



전 대구 파계사 주지 허운스님(사진)이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군종특별교구 지원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기금은 군종특별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신축 법당 불사 지원에 쓰인다. 전달식에서 허운스님은 “평화통일의 상

징 판문점에 법당을 지음으로써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자 하는 군종특별교구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됐다”며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종교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감사”고 화답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80명 사미사미니계 수지 제50기 수계교육 회향

지난 11일 회향한 5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 교육에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교한 소년 출가자 3명을 포함한 남

자 54명과 여행자 26명 등 총 80명이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수계교육에는 당초 82명이 입교했으나 남행자 2명이 각각 자진퇴방과 승가고시에 불합격되면서 80명만 계를 받았다.

지난 2월25일부터 시작된 16일간의 수계교육 동안 행자들은 오후불식과 묵언을 실천하며 습의와 염불의식, 사미(니)율의를 익히고, <초발심자경문> <법구경> 부처님 생애 <범망경>

등을 배웠다. 또 일보일배, 삼보일배, 3000배 등을 통해 하심을 익혔다. 또 회향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는 5급 승가고시를 치렀다.

교육원장 현웅스님은 사미 사미니계 수지 후 승가대학 진학을 앞둔 스님들에게 “열심히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널리 펼 것”을 당부했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총회위원 겸직금지 완화, 더 논의” 사부대중위원회 11일 입장문 발표

조계종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공동위원장 도법스님)가 총회위원의 겸직금지 완화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 추진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겸직금지”는 종단 내 삼권 분립을 유지해온 핵심 조항일 뿐만 아니라 1994년 종단개

혁을 상징하는 제도이자 대의제를 채택해온 현대 종단 운영의 근간”이라며 “이번 종헌 개정을 개혁 정신 실종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총회가 지난해 겸직금지 대상을 총무원에서 교육원과 포교원으로 확장한 바 있다”며 “불교 9개월 전에 내린 종헌 개정과 정반대되는 개정이 이뤄지는 셈이므로 그 이유도 분명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일공회 정기모임 공고

(一空會)

丙申年 新春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昨今에 10期 도반스님들의 정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遠近을 마다하고 부디 참석하시어 반가운 마음을 함께 하기를 仰望합니다.

- 일시_ 불기2560(2016)년 양력 3월 29일(화) ~ 30일(수) (음력 2.21~22) 29일 오후 3시까지 도착 바람. 가사장삼 차림 요망 (인사 있음)
- 장소_ 팔공총림 동화사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동화사길 1)

- ※ 저녁 만찬 장소 및 숙소는 추후 문자로 통보함.
- ※ 늦게 오시는 분, 29일 당일만 참석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가급적 미리 연락 바랍니다.
- ※ 문의 및 연락처 : 부회장스님 010-5096-3789 / 총무스님 010-9373-3066
- ※ 계좌번호 농협 352-0840-6480-13 손해식(일공회)

☎ 대한불교조계종 일공회 회장 혜 능 拜上

영원한 안식의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 잘 때나 한 순간도 ‘이놈이 누구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행한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백백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의시간 및 기간 _ 2016. 5. 21.(토) 첫 법문(오후 8시, 2년이상)
- 장소 _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 강의로 _ 50만원(교재비 무료)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